

현존자녀수는 자녀 4명을 가진부인이 28.1%로 가장 많고 평균자녀수는 4.1명이었다.

3. 분만환경

분만장소는 가정분만이 95.4%로 대부분이며 제대절단방법을 알아보면 가위 사용이 97.8%로, 소독을 하지 않고 사용한 예가 89.6%이다. 분만시산포로서는 세멘푸대가 44.2%로 가장 많았다.

4. 가족계획에 대한 태도 및 실천

가족계획에 대한 찬성율은 95.0%이었으나 가족계획에 대한 실천율은 42.6%가 현재실시중에 있으며 연령별로는 35~39세군이 21.8%로 가장 높은 실시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적자녀수는 4명이 38.5%, 3명이 36.2%로 대부분이 3~4명의자녀를 원하고 있다.

5. 영유아 보건

1) 모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98.8%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2%만이 우유로서 양육을 하였다.

2) 이유기에 있어 먼저 이유란 용어의 어의를 주식으로 3분지 2가 모유나 우유가 아닌 다른음식에 의해서 양육되는 것을 이유라 규정하고 2년이상인 60%로 대부분이며 1년까지는 40%를 보였다.

3) 예방접종상황을 보면 전혀 예방접종을 받은 일이 없는 아이는 11.4% 한가지이상 접종을 받은 아이는 15.2%, 보사부에서 규정한 법적 예방접종의 전종류를 완전히 실시한 아이는 34.2%였다.

폐결핵환자 가정간호에 관한 일 사례 연구

대한간호, Vol. 14, No. 3, pp. 56~62, 1975.

차 정 순

1974년 2월 25일부터 1975년 4월 20일까지 통원치료를 받는 폐결핵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폐결핵환자의 생리와 심리를 파악하며, 환자교육으로 폐결핵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회복을 도우며, 가족에게는 전염을 예방하고 환자의 요구와 문제중심의 상황을 관찰하며, 문제해결의 간호계획을 세워 가정간호를 하였다. 관찰된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환자와 가족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결핵을 이해하고 개인위생과 가족위생의 올바른 가정간호를 시행하여 가족에게 전염을 예방하게 되었다.
2. 환자의 심리적인 불안제거는 가족이 환자에게 친절하게 위로와 용기를 주어서 환자의 불안한 마음은 안정되고 해소되었다.
3. 충분한 영양섭취로 체중은 4kg나 증가되었다.

인천시 일부 모성의 산후안정일수에 대한 조사연구

경기간호전문학교 논문집, Vol. 7, pp. 69~91, 1976.

김 경 속

저자는 1975년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인천시내거주모성 332명에 대하여 분만후의 안정일수와 산욕후 제 신체증상을 모성의 특성별 사항(연령, 교육수준, 출산력, 가족구조)과 비교 조사하여 통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모성의 분만후 안정일수분포는 2주이하군, 3~4주군, 5주이하군에 각각 41.6%, 30.4%, 28.0% 였다.
2. 안정일수가 2주이하군에서 산욕기에 안정을 하지 못한 이유로는 71.0%가 집안일을 도울사람이 없어서 였다.
3. 산욕부의 평균안정일수는 19.1일이었으며 연령별로 비교하여 볼 때 유의적 차가 없었다.
4. 모성의 특성사항중 교육수준을 제외한 연령, 출산력, 가족구조별로 본 안정일수 분포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다.
5. 교육수준별 모성의 안정일수분포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많아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안정일수가 2주이하군에는 국졸이 많았고 5주이상에는 고졸이상이 많았다. (p < 0.01)
6. <표 7>에서 산전진찰을 받은 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중 일반위생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므로 각 의료기관은 진료활동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시급히 요구된다.